

石洲集 국역 출판과 權韓先生

석주집

권필선생

(역자 : 정민 교수,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차오산(車五山)에게 부치다

寄車五山

흰 머리로 물려 사니 마음이 어떠한가
긴긴 밤 부절없이 ‘백석가(白石歌)’를
을조리네.
사해에 길이 막혀 슬픔에 눈물 짓고
7년의 뜬세상은 전쟁으로 지긋지긋.
홀로 푸른 그대는 이미 송백(松柏) 의지했고
초복(初服) 입은 나는 장차 기하(荑荷) 옷을
지으리라.
이 편지를 오래도록 적막하게 하지 마소
강호엔 가을 기러기 군래 들어 많아졌네.

陸沈霜髮意如何
長夜空吟白石歌
四海窮途悲涕泗
七年浮世厭干戈
後凋子已依松柏
初服吾將製荑荷
莫違書牋長寂寞
江湖秋雁近來多

※ ‘백석가(白石歌)’ : 춘추시대 영척(甯戚)이 소를 먹이다가 제환공과 만나 쇠뿔을 두드리며 불렀다는 노래. 노래 첫 구절에 남산의 백석에 관한 내용이 보인다. 제환공이 이 노래를 듣고 그를 재상으로 기용했다.
※ 초복(初服) 입은 나는 : 초복은 벼슬하지 않은 사람이 처음 입던 옷이고, 기하는 연임이니, 세상을 피해 숨어 사는 은자의 복장을 가리킨다.



벗의 시에 차운하다

次友人韻

물나리에 봄이 깊어 기러기 그림자 드문데
먼 데 사람 여전히 저울옷을 입었구나.
고향 땅 아득하다 소식도 하나 없고
리끌새상 어지러이 시비만 따진다네.
어드에 작은 도화 물가에 서있고
새 제비가 산 사립에 들어올 바로 뵈네.
맑은 창서 갑자기 돌아가는 꿈을 꾸니
문밖의 수양버들 초록 가지 살겠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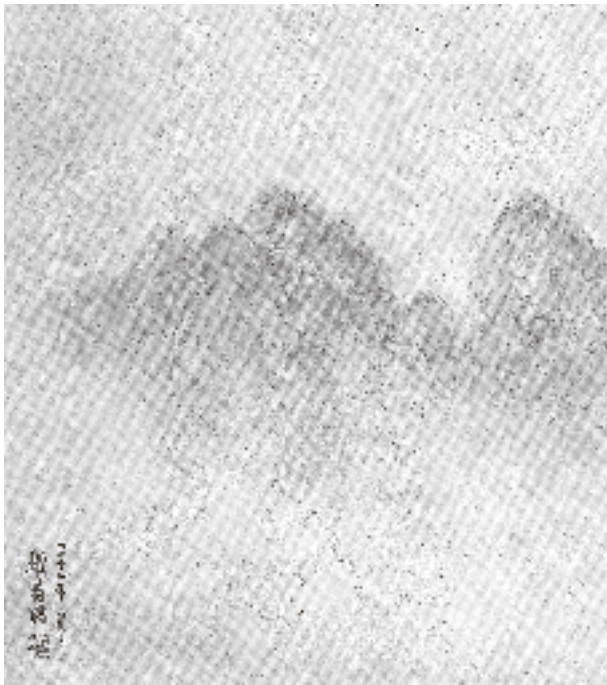
澤國春深雁影稀
遠人猶著臘前衣
鄉關渺渺無消息
塵世紛紛有是非
何處小桃臨水岸
卽看新燕入山扉
晴窓忽作還家夢
門外垂楊綠已肥

韓國畫 非具象의 要諦美

한 국 화 비 구 상 요 체 미



作家 權義鐵씨



한국화(韓國畫) 비구상(非具象) 요체미(要諦美)의 작가 권의철(權義鐵)씨가 지난 10월9일~21일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 1층 한가람미술관에서 MANIF 18/12 SEOUL KWON, EUI CHUL 전시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화의 비구상 회화는 순수한 선(線).면(面).색(色).형(形).동세(動勢).변화.통일.재질감(材質感) 등의 형식적인

조형요소만으로 구성하여 창조하는 현대미술의 주류를 이루는 표현 방법이다.
한국화가 권의철은 한국화 구상에서 비구상으로 변전되는 과정을 표현미의 가장 본질적인 것만을 남겨 놓고 다른 것은 배제 또는 생략해 버리는 제작방법과정에서 전개하는 화면 속에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불필요한 것인가를 판단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예상치 않은 저해요소와 역경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는 끊임없는 미술 습작의 시도를 통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경이롭고 신비한 발상에 의해 발견된 한국성(韓國性)에 전력하여 순수 우리의 정감과 미감 속에 담겨진 추상적 요소를 찾는 화두(話頭)를 제시해 주고 있으며 한국적 추상성의 송고미(崇高美)를 추구해 주고 있다.

또한 권작가의 작품세계는 한국인만이 선택할 수 있는 사유공간(思維空間)과 작

관(直觀), 그리고 관조(觀照)를 통해 평범한 2차원의 평면회화에서 독창적인 3차원의 입체회화로 옮기면서 작가적인 조형어법과 동기유발에 의해서 참신한 형상상을 이루어 내고 있다고 선한균(한국미협 자문위원. 관동대 명예교수)씨가 그의 작품을 총평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화가 권의철(權義鐵 68. 상주 북야공과 36世)씨는 경북 상주시 낙동면 구장피 모산마을에서 일친 권오현씨와 자당 노순분여사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씨는 어린 유년시절부터 미술에 천부적인 소질이 특이해 초·중·고 시절부터 ‘전국불조심포스터’에 작품을 출품해 여러 차례에 걸쳐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양화과를 졸업하고 미술 작가수업을 하면서 1980년 도부터 한 작품을 제작하기 전에 우선 주제(主題)를 설정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관찰하면서 심적 구상에 의한 심상(心像) 세계를 추구하는 작업을 했으며 또한 그의 용필법(用筆法)은 가늘고 굵은 선을 긋는 춘잠도사식 필법과 물에 적서 축인 화선지 위에 즉필(竹筆)의 방향, 속도, 강·약 등의 리듬을 창출하는 작품을 보여주고 있으며 40여년에 걸쳐 한길을 걸으면서 한국화 비구상 분야에 한 장을 활짝 펼쳐가고 있다.

(연락처 : 010-7767-0927) (권오복 편집위원)

■작가 주요경력

△역임 : 대한민국 미술대전 비구상 심사위원장, 운영위원, 서울미술 대상전 한국화 심사위원장, 운영위원

△현재 : (사)한국미협 이사, (사)서울미협 이사, 대한민국회화대전 이사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 2012

제41회 안동민속축제 개최



△탈춤공원에서 '2012 안동국제 탈춤페스티벌 2012' (제41회 안동민속축제) 개막 축하 퍼레이드를 펼치고 있다.



△안동시민의 동력과 국내외, 관광객들이 하나되는 ‘대동난장퍼레이드’ 안동탈춤축제 새로운 아이콘으로 정립하는 행사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명예대표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2’ 및 제41회 안동민속축제 행사가 안동시 주최, (재)안동축제관광조직위원회 주관, 우원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 경상북도, 한국관광공사, 탈춤공원, 하회마을, 안동시내일원에서 ‘귀여운 악(樂)마들의 난장’의 주제로 지난 9월 28일~10월 7일 (10일간)까지 추석 연휴 기간에도 불구하고 108만 여명의 관광객 귀성객이 행사장을 방문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우수한 문화자원을 통한 문화교류로 세계로 도약하는 축제인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2012’ 행사는 △대동난장 퍼레이드(5회)와 △탈춤공연 국내·외 12개국 참가 △하회선유물 볼놀이 △차전놀이 △

부대행사(안동민속축제, 무형문화재, 풍속, 풍물, 시연) △경연행사 △하회마을 전통행사 △유교문화 체험행사 △체협행사 △전시행사 △세계 탈 특별 전시회 △안동의 음식과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하게 행사가 펼쳐졌다.
한편, 금년 탈춤 축제행사는 中·高·大 학생 젊은층이 전체 82%를 차지해 안동의 젊은이들의 축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직접 참여하여 안동 축제의 미래를 밝게 해주기도 했으며 축제 개막식에는 지역 청소년 100여 명이 개막 공연 참가와 424명의 자원봉사자가 헌신했으며 10일 동안 행사에 1,000여명 의 젊은이들이 세계탈놀이 경연대회에 참가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 행사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탈 산업화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탈과 탈춤에 관한 호기심을 축제를 통해 충족시켰으며 살비 등의 축제 전반을 진행함으로써 축제와 지역의 문화 인력이 함께 성장하게 되며 체계적으로 시스템화된 자원봉사운영으로 젊은 인력의 흡인력을 가졌으며, 대동난장 퍼레이드의 성공으로 참여하는 축제 탈을 써야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도 했으며 특히 거리무대의 활성화로 공연자, 관광객이 차별없이 함께 즐기는 축제로 활성화되기도 했다.
(자료제공 : 김원정(안동시청 부장) (권오복 편집위원)

■ 신간안내

수필 ‘돌아와 앉은 오후 네시’

권오영 씨 발간

‘언제까지라도 침없이 내릴 것 같더니 지금은 세상이 다 고요하다’, ‘그리움 하나만으로도 사람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꽃보다 아름답다는 말이 있다. 저자가 그린다 그림과 손수 짠 사진을 곁들인 이 시적인 수필집 ‘돌아와 앉은 오후 네시’란 책이 권오영 씨(權五英·61, 경북봉화, 북야공과 36世)가 302쪽으로 지난 8월27일 소동출판사(刊)으로 발간했다.
이 책은 모두 여섯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장은 일상에서 걸어올린 글들, 2장에는 주변의 식물 이야기, 3장은 주로 인간의 비인간적인 면모에 분노하고 그를 고발하는 내용, 4장은 고향에 얽힌 이야기, 5장은 전시회 관람기, 6

장은 저자의 모사 그림과 마우스 그림을 글과 함께 묶어 발간했다.
저자는 세계명작을 모사해 전시회를 하면 좋겠다는 미술계 어떤 분의 의견에 따라 명작을 찢던 동안 열심히 그려 명화 모작전시회를 개최하고 창작 활동을 하기로 계획했으나 불행히도 화실에 화재가 발생해 일부분이 소실되고 남아 있는 사진과 직접 그린 그림, 마우스 그림 등을 한데 묶어 책을 펴 냈다.
이 책에 대해 신봉승 씨(극작가, 문학비평가)는 저자 권오영 씨가 그림만 잘 그리는 줄 알았으나 글 솜씨가 또한 일품이며 글 한줄 한줄이 얼마나 다정다감한지, 꽃이며 풀이며 새들이며 주변의 온갖 생명체들의 가슴도 따뜻하게 어르만져주는 것 같다.



요즘처럼 어지러운 세상에 저자의 이런 따뜻한 글이 한 줄기 빛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이광복 씨(한국문인협회부회장, 소설가)는 이 수필집이 우리 수필 문학에 밑거름으로 이정표를 세울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문의처 : 010-9423-5007(권오영) (권오복 편집위원)

■ 역사기행

정조대왕(正祖大王)과 화성행궁(華城行宮)

■ 향촌 권오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원위원)

조선조 제22대왕인 정조(1776년~1800년)는 1759년(영조 35년)에 세손에 책봉되었고 1762년 사도 세자(思悼 世子)가 죽은 후에 1775년 연로한 영조(英祖)를 대신하여 국정을 맡아 보았으나 영조(724년~1776년)가 승하하자 1776년 즉위하였다.
정조는 재위기간중 주요 정치 이념으로 탕평책(蕩平策)에 기반을 두었다.
이러한 치세는 선왕으로부터 이어받고 당쟁의 폐해를 지양하고자 하는 소이다.
정조는 11세때에 소위 임오사건(壬午事件)을 잘 알고 있는 처치여서 왕위에 오르자 이를 당쟁의 결과로 보고 개혁정치를 시행하고자 노력했다.
임오사건은 사도세자가 1762년(영조 38년) 5월 13일에 억울한 무고를 받아 서인(庶人)으로 폐하게 되고 뒤주속에서 굶어 죽는 사건이다.
이 이야기의 근거가 되는 왕조실록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도세자 퇴축은 학문을 게을리하고 괴이한 행동에 있었다. 왕세자로서의 작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그 지적 사례로서 궁녀를 죽이고 기녀들을 희롱하고 여승을 궁녀로 삼고 관서지방

을 몰래 20여일간이나 유람한 행동은 끝내 영조의 미움을 사게 되었다.
“내가 자결하면 종묘사직을 보존 할 수 있을 것이다. 어서 자결하라” “세자를 폐하고 서인으로 삼고 뒤주에 갇히 가두어라” 영조의 노여움은 극에 달하였다.
사도세자는 눈물로 용서를 빌었으나 뒤주속의 비극으로 막을 내린다.
이는 영조의 판단에 의하였으나 세자의 비행에 대한 벽파(僻派)의 상소가 좌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세자를 동정하는 파와 세자를 더욱 공격하여 합리화 하려는 파가 있었는데 전자는 시파(時派)라 하고 후자는 벽파(僻派)라 불렀다. 시파는 남인(南人) 계통이고 벽파는 노론(老論) 세력이었다.
영조는 나중에 끝없이 후회를 하고 슬픔을 달래면서 죽은 세자에게 사도(思悼)라는 시호를 내렸다.
정조는 즉위하면서 “파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라고 천명하였다.
정조는 자연히 벽파를 탄핵하기에 이른 다.



이때에 등극에 공로가 많은 홍국영(洪國榮 1748년 영조 24년~1781년 정조 5년)을 중용하여 정치를 맡기고 한때에 호학군주로 전념하였으나 홍국영은 그 때부터 대략의 정사(政事)는 상주(上奏)와 결정이 그의 손에 자행되어 횡포를 하였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 세도정치(勢道政治)의 시발점이 된 것이다. 홍국영은 결국 방축(放逐)되어 3사(司)의 탄핵으로 형벌을 받았으며 강릉(江陵)에서 죽었다.
영조의 주요한 치적을 볼 것 같으면 위민정치(爲民政治)에 힘을 쏟고 봉당의 폐해를 막기위한 정책국정(政策國政)을 이끌어 나갔다.
그 일환으로 남인(南人)을 등용하였고 서북인(西北人)과 서인(庶人)도 기용하였다.
그는 규장각(奎章閣)을 설치하였고 활자를 개량하여 서적을 간행하고 학문을 장려하였다. 경사토론(經史討論)을 행하고 실사구시(實事求是)와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實學)을 발전시켜 경제적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문화적 르네상스를 이룩하였다.
또한 균역법의 제정 악형의 중지 신문고의 설치등으로 각종 문물제도를 개혁하여 민생을 살피는데 진력하였다.

정조는 문치 뿐만 아니라 국방분야에 있어서도 군제(軍制)를 개혁하고 수어청(守禦廳)을 두어 총포를 제작하고 조총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토성을 수축하였고 적극적인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특히 국왕직속 장용영(壯勇營)을 두어 정예화 하였다.
그러나 정조재위 기간 중 1791년 신해사옥(辛亥事獄)으로 천주교를 탄압하여 박해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전라도 진산군(珍山郡)의 윤지충(尹致忠) 모친상을 당하여 상장(喪葬)과 조문(弔問)의 예(禮)를 아니하였고 그의 외제(外弟) 권상연(權尙然)은 신주(神主)를 불사르고 천주교식 제례를 지냈다는 소문이 났다. 조정에서는 진산 군수 시사원(申史源)을 시켜 무부무군(無父無君)의 사상을 신봉하였다는 죄명으로 처형당하였다.
그때에 천주교 교주로 지목받은 권일신(權日身)을 귀향 보냈다.
정조의 치적 중 가장 뛰어난 업적은 수원(水原)에 화성을 축성하고 행궁을 건축하였다.
수원화성은 1794년 1월에 착공하여 2년 9개월만인 1796년에 완공한다.
성곽둘레가 약5.7km 성곽 높이는 4-6m 이고 축성재료는 석재와 벽돌을 썼다. 이는 새로운 계획도성으로서 유형원(柳馨遠)과 정약용(丁若鏞)이 설계하고 용재를 규격화하고 거중기를 고안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실용적인 축조도면과 시방서를 의뢰에 남겼다. 축성시 51개의 시설물이 있다고 하나

전란 등으로 소실되었고 현재는 41개의 시설물이 있다.
화성은 1997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화성 행궁은 1790년에 340칸이 1796년에는 화성이 완공되면서 576칸으로 조성되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이 파괴된 것을 1996년 복원 사업을 실시하여 482칸을 복원하였다.
화성과 행궁은 정조가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정도는 사도세자의 영유원을 서울 휘경동 배봉산록에서 1789년에 현재의 용릉(隆陵)위치로 옮겼다. 그리고 화성과 행궁일원을 소경(小京)으로 승격시켰다.
또한 사도세자의 영혼을 위로 하기위하여 1790년 용주사(龍珠寺)를 세웠다.
용주사 호성전(護聖殿)에는 사도세자와 혜경궁 홍씨 정조대왕과 효의 왕후의 위패를 모시고 영원한 쉼을 밝히고 있다.
용주사 후면에는 사도세자의 용릉(隆陵)과 정조대왕의 건능(健陵)이 위치한다. 그래서 용주사는 능사(陵寺)이다.
정조는 재위시 13차례 이르는 통행차를 하였다. 오늘날 그의 뜻을 잇기 위하여 매년 10월 화성 문화제 행사 때에 정조대왕 통행차 장면을 재연한다.
수원의 화성과 행궁 그리고 용릉과 건릉은 인류문화유산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인정받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명소임에는 틀림없다.

소금꽃



청하 권대옥

뿌리 없는 꽃 피었다
하얀 꽃

물 위에서
비린 햇살 받아먹고
찌푸린 이 바다의
전설을 말려
계 육신, 소신공양 뒤
사리로 피어 주었다

일상의 반복된 밑물과 썰물의 노래
켜켜이 없어
대지의 자양분 하나마저 거부하고
핀
소금밭, 저 꽃
누가 심은 꽃인가.